

회원사 가족이 되었습니다

본 지면은 한국광학기기협회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를 소개하는 면이다.
협회의 새로운 가족이 된 크루셜텍(주)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편집자 주>

크루셜텍(주)

옵티컬 트랙패드로 세계시장 선점

크루셜텍(대표 안건준, www.crucialtec.com)은 휴대기기 입력장치 전문기업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입력기술인 옵티컬 트랙패드를 비롯해 모바일 보조광원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이다. 매출의 90%를 차지하며 이 회사의 주력제품이기도 한 옵티컬 트랙패드(Optical Trackpad)는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휴대폰 화면에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입력기기로서 PC의 마우스나 다름없다. 이 제품은 캐나다 림(RIM)의 블랙베리는 물론 삼성전자 HTC 샤프 교세라 등의 휴대폰에도 탑재되고 있다. 이밖에 모바일 카메라 보조광원인 LED 플래시 모듈, PL 렌즈를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자기기에 최적화된 UI 알고리즘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하드웨어 솔루션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모두 보유한 '토탈 입력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크루셜텍은 독보적인 노하우와 경험을 통하여 글로벌 핸드셋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영업을 펼쳐 시장을 개척한 결과, 전 세계 옵티컬 트랙패드 시장을 선점하며 2010년에는 창사 이래 최대인 2079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올해 창사 10주년을 맞이한 이 회사는 매출을 올해 3500억원, 내년에는 6000억원, 2013년에는 1조원으로 늘려나가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회사 측은 주력 제품인 옵티컬 트랙패드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디지털카메라 등에 장착되는 발광다이오드(LED) 플래시 모듈 등의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매출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베트남 하노이공장을 6월께 가동할 계획이다. 이로써 옵티컬 트랙패드 월 생산 능력은 지금보다 3배 많은 3000만대로 늘어나게 된다. 안건준 대표는 "현재 200명인 연구·개발 인력을 올해 안에 50% 이상 늘리는 등 기술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옵티컬 트랙패드와 터치스크린을 결합한 원칩 솔루션 등의 신개념 기술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크루셜텍(주)

- 대표 : 안건준
- 전화 : (041)913-0001
- 팩스 : (041)913-0009
- 주소 : (본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세출리 165
(중앙연구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의동 906-10
KANC 15층
- 홈페이지 : www.crucialtec.com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크루셜텍의 주력제품인 옵티컬 트랙패드는 휴대폰의 입력기기이다.



▶크루셜텍의 안건준 대표